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소말리아 테러조직 '알샤밥'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추 윤 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구형희

소말리아 테러조직 '알샤바'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 in East Africa by Somali Terrorist
Organization 'Al-Shabaab'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추 윤 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구형회

소말리아 테러조직 '알샤바프'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 in East Africa by Somali Terrorist
Organization 'Al-Shabaab'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추 윤 식

추윤식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소말리아 테러조직 '알샤밥'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추 윤 식

테러조직 알샤밥의 소말리아 정부 전복을 목표로한 끊임없는 테러활동은 이미 소말리아를 넘어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그 위협이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알카에다와 보코하람 등의 테러조직과의 연계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그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UN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연합군 파견과 미군의 간접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통하여 소말리아와 동아프리카 지역의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말리아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 비효율적인 인도주의 지원, 아프리카 연합군의 역량부족 등으로 알샤밥의 완전한 퇴치는 요원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탈냉전기 새로운 전쟁양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 테러리즘과 비대칭전쟁 양상을 이론적 토대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소말리아 자생 테러조직 알샤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의 도출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미 9.11 테러 이후 국제적인 분쟁의 패러다임이 국가간의 전쟁에서 국가와 비국가 무장단체와의 비대칭전쟁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분쟁중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과 같이 알샤밥 또한 전형적인 국가 또는 연합국과 비국가 무장단체와의 비대칭전쟁이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문명과 야만의 전쟁, 정규군대와 비정규 무장단체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피아 식별이 비교적 쉬웠던 과거 정규전 부대간의 전투에 익숙해져있던 서방세계에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작전 수행을 위해서 국내외 여론과 전쟁법, 국제법, 인도주의 등 각종 법규와 규제에 얽매어 있는 정규군에 비해 이러한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점조직 형태로 분산되어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비국가 무장단체들은 운신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작전효율성도 정규군을 앞서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테러조직의 연계로 인한 테러리즘의 국제적 확산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무기(IED 등) 관련 정보공유의 편리성 향상으로 인한 무차별 테러 확산과 시리아, 이란, 북한 등 불량국가들을 통한 대량 살상무기 획득 가능성 증가 등 테러리즘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향후 국제테러는 핵 및 화학무기, 사이버 테러를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하는 양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안보 관련 연구는 대부분 북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에 국한되어 왔으며 국제테러 조직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 진행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는 곧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같은 수준의 안보 감각과 역량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제 평화유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 곳곳에서 활동중인 테러조직들에 대한 심층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테러조직들과 테러조직들의 활동양상에 대해서는 전쟁론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하며, 테러 발생 환경 조성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예방 조치, 테러 발생 임박징후 포착으로부터 대응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연구 및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테러리즘과 비대칭전쟁 양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제 1절 테러리즘의 개념과 변화 동향	3
제 2절 국제 테러리즘의 발생 유형	4
1. 국가개입 여부에 의한 분류	4
2.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5
3. 수단과 방법에 의한 분류	7
제 3절 비대칭전쟁 양상의 개념과 변화 동향	8
제 4절 비대칭전쟁 양상의 주요 특성	11
1. 장기적 소모전 전략	11
2. 민간인 불모 전략	12
3.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홍보 및 심리전략	12
4. 국제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무기의 확보	12
제 3 장 알샤밥의 실체와 퇴치를 위한 노력과 한계	13
제 1절 알샤밥의 실체 연구	13
1. 알샤밥의 탄생 과정과 조직구성	13
2. 조직원 모집과 훈련 및 운영자금 확보	17
3. 반정부 활동과 조직 지도부의 내분 가능성	24
제 2절 알샤밥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계	27
1. 미국과 아프리카 연합군의 성과와 문제점 및 제한사항	27
2. 소말리아 정부의 부정부패	33
3.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한사항과 문제점	37

제 4장 알샤밥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38
제 1절 알샤밥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	38
1. 소말리아 정치 불안 가중	38
2. AMISOM 병력 공여국에 대한 테러활동 증가	39
3. 소말리아 난민증가로 인한 지역 안보불안 가중	39
4. 테러조직간 연계로 아프리카 전역에 안보불안 확대	40
제 2절 알샤밥 퇴치를 위한 대응 전략	42
1. AMISOM 군사작전 능력 강화	42
2. 해안통제 강화를 통한 무기 지원 및 자금 이동 차단	43
3. 소말리아 정부의 부정부패 감소대책 강구	44
4. 조직원 충원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45
제 5 장 결 론	46
【참고문헌】	48
ABSTRACT	51

< 표 목 차 >

<표 2-1> 테러리즘의 유형별 분류	4
<표 2-2> 혁명적 테러리즘 사례	6
<표 3-1> 소말리아 해적활동 현황	22
<표 3-2> AMISOM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 발생 사례	31

< 그림 목 차 >

<그림 3-1> 알샤밥 지도부 및 지역별 조직도	16
<그림 3-2> 차콜 판매 루트	21
<그림 3-3> 아프리카 연합군 작전구역	29
<그림 3-4> 소말리아 세력분포 현황	30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동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구세력들의 오랜 식민지 시기와 냉전기간을 거치면서 잠재되었던 갈등요인들이 냉전 종료와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수 차례의 쿠데타와 민족, 종교, 영토, 천연자원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정치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부족출신 정권의 타 부족에 대한 인종청소, 다양한 군벌 및 테러조직들의 무차별적인 테러와 잔학행위, 인권유린,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인도주의적 지원품의 비효율적인 분배 등으로 인한 식량부족사태와 대량아사, 대량난민 발생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특히 소말리아는 오랜기간의 독재정치 기간 동안의 부패와 정권붕괴 이후 20년이 넘게 지속된 무정부기간 동안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국가 기능은 마비되었고 국민들은 하루하루의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자생 테러조직인 ‘알샤밥’의 테러활동으로 인하여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및 국제평화유지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행위와 테러조직의 활동은 특정지역과 특정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왔으며 현대의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문제는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이 테러리즘의 급속한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국제사회 전체를 테러리즘의 잠재적 희생자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제 테러리즘과 비대칭전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알샤밥의 테러활동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알샤밥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계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테러리즘의 발생빈도가 증대되고 그 피해의 정도도 심화되는 추세에 따라 테러리즘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9.11테러를 계기로 정치적 혹은 군사적 차원에서의 테러리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해외 테러조직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 논문의 주제이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조직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알샤바에 대한 국내자료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당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테러리즘과 비대칭전쟁 양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부터 알샤바의 실체에 대한 사실연구 및 알샤바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와 소말리아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 알샤바가 동아프리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분석, 알샤바 퇴치를 위한 대응전략 연구 등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연구목적,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주제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테러리즘과 비대칭전쟁 양상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다. 제 3장에서는 ‘알샤바’이란 조직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실체 파악과 이들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제 4장에서는 알샤바가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안보학술논문, 테러리즘 관련 선행연구 자료, UN 소말리아 감시단과 UN 인권감시단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 본인이 실제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있는 다국적군 부대(CJTF-HOA)¹⁾에서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아프리카 연합군 파병 장교와의 인터뷰 및 다양한 국제 안보전문기관들의 ‘알샤바’에 대한 연구자료를 참고하였다.

1) CJTF-HOA(Combined Joint Task Force - Horn Of Africa) : 미 아프리카 사령부 예하 동아프리카 지역 연합합동임무단, 소말리아 북쪽 국경에 인접한 지부티에 위치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테러리즘 창궐 방지와 지역 안정화 등을 위해 2003년부터 전개하여 대테러작전, 민사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예멘, 에티오피아, 브룬디, 우간다, 코모로스 등의 동맹국 장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제 2장 테러리즘과 비대칭전쟁 양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테러리즘의 개념과 변화 동향

테러의 어원은 라틴어인 Terror에서 비롯되었으며 어원의 의미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태 그리고 죽음을 야기하게 하는 행위에서 기인하며 일반인에게 커다란 공포 또는 죽음의 심리적 상태를 주게 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테러와 테러리즘은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으나, 엄연한 의미의 차이가 있어 구별할 필요가 있다.

테러(Terror)란 폭력을 사용하여 남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주관적 행위로서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의 자연적 현상임에 반해, 테러리즘(Terrorism)이란 특정 테러집단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포수단을 이용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으로써 대중에 대한 테러집단의 계획적 테러행위이자 조직적 폭력행위이다. 결국 테러는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생 가능하며 테러는 테러리즘의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다.²⁾

정치테러리즘을 가장 단순히 정의하면 “강압적인 위협”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치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들의 정치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공동체 또는 정부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는 행위이며 살인과 파괴 및 그 위협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³⁾

테러리즘은 정치적 산물인 동시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테러조직은 상황변화에 따라 등장되었다가 소멸되거나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더 진화하거나 새로운 조직으로 분화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한다. 그 일례로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제 테러리즘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 동향과 그 요인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종식으로 극좌 테러조직의 네트워크가 붕괴되었고, 둘째, 1980년 8월 1일 발생한 걸프전으로 아랍권 테러조직의 구성과 활동이 약화되었다. 셋째, 21세기 이념대립과 테러양상이 이미 전개되었다. 대

2) 오현철(2013), “국제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 p.4.

3) 이태운(2002), “탈냉전기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p.14.

표적인 사례로 9.11 테러 사건은 비국가적·초국가적 테러집단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작전과 같은 치밀한 테러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제 4세대 전쟁’ 혹은 ‘비대칭전쟁’으로도 불리며, 21세기 새로운 전쟁 유형을 예고하였다.

따라서 국제 테러리즘은 미국 및 친미국가와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과격 테러 조직으로 양극화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제 테러리즘은 전쟁 외의 대안적인 방법의 행동양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전쟁방식으로서 국제 테러리즘은 ‘선전포고 없는 전쟁’, 즉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⁴⁾

제 2절 국제 테러리즘의 발생 유형

국제 테러리즘 유형은 어떤 기준에서 분류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주체별, 목적·이념적 동기 또는 원인별 분류, 국가개입별 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가개입 여부에 의한 분류

테러활동을 활동조직의 주체와 국가개입과의 관계를 기준하여 분류방식을 제시한 학자는 미콜러스(E. Micholus)이다. 그는 테러리즘을 특정 정부의 통제나 지휘여부 및 2개국 이상의 국민 또는 영토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기준하여 <표 2-3>과 같이 분류하였다. 미콜러스에 의한 테러리즘의 유형분류는 현재 미국의 CIA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 기준에 따라 테러리즘의 조직구성, 공격수단, 공격목표, 요구사항 등의 항목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 테러리즘의 유형별 분류

국민 또는 영토관련 여부 정부의 통제나 지휘 여부	有	無
有	국가간 (international, interstate)	국가(state)
無	초국가(transnational)	국내(domestic)

출처 : 이태운(2002), “탈냉전기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p.24.

4) 오현철, 전개논문, p.10.

첫째, 국가간 테러리즘(interstate terrorism)은 테러행위가 어느 주권국가의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받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자행되며, 그 표적이 타국의 국민이나 영토와 관련되어 있고 테러활동 무대도 타국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유럽과 중동내의 팔레스타인 그룹들에 대한 이스라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행위와 북한의 해외 테러행위는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국내 테러리즘(domestic terrorism)은 한 국가의 국민과 영토에만 국한되는 테러리즘으로서 기존정부나 국민에 대해 자행되는 테러리즘이다. 북아일랜드의 ‘울스터방위연맹’(UDA) 및 미국의 ‘웨더지하단’(Weather Underground) 등에 의한 테러리즘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은 자국 내에서 정부에 의해 반정부세력이나 국가에 대해 자행되는 테러로서 소위 ‘관제테러’가 여기에 속한다.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시대에 비밀경찰에 의해 자행된 고문, 학살, 숙청행위나 히틀러시대의 나치당의 테러행위가 그 예이다. 북한의 국내억압테러행위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넷째, 초국가 테러리즘(transnational terrorism)은 우호적인 정부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지원정도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비국가적 단체들에 의한 테러리즘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테러리즘은 테러를 국가의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로서, 예를 들면 소련, 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시리아, 이란, 예멘, 북한 등의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동양상도 외교관 납치, 대사관 점거 또는 방화, 인질사건 등 다양하다.

2.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테러리즘 발생의 기본 조건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와 같은 원인이 있어야 하고, 폭력의 사용이나 그 위협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야 한다. 이 위협에는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다는 특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을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적 테러리즘이다. 이는 지배국 또는 소속된 국가의 정치체제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 자행하는 테러리즘이다.

<표 2-2> 혁명적 테러리즘 사례

테러조직	테 러 내 용
일본 적군과 (JRA)	1974년, 재래식 수단으로 무장한 적군과 요원 3명이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프랑스대사관을 점거하고 대사 등 11명의 인질을 억류하여 프랑스에 수감된 대원을 석방시킨 사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1972년 9월 5일, 당시 서독에서 제 20회 뮌헨올림픽 시기에 PLO 산하단체인 '검은 9월단' 소속의 무장단원들이 이스라엘 선수촌에 침입하여 육상선수를 살해 및 인질 억류 등으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정치범과 일본과 서독출신 적군과 요원의 석방을 요구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단호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인질 전원이 피살된 사건 1976년 6월 27일, PLO 테러범들이 이스라엘 로드(Lod) 공항을 이륙한 파리행 프랑스 항공기가 중간 기착지 아테네에서 이륙한 후 항공기를 피랍하여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시키고 팔레스타인 테러범의 석방을 요구하며 유대인 승객을 인질로 억류한 사건
지하드 (Jihad)	1983년 4월 18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은 이슬람 성전 단체가 트럭에 폭탄을 싣고 미국대사관에 돌진한 폭탄테러로 90여명이 실종되고 100여명이 부상당한 사건

출처 : 오현철(2013), “국제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 p.13.

둘째, 정치적 테러리즘으로 이는 기존 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적 신념과 이상을 근간으로 하여 수행되는 테러리즘을 말한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주로 비밀리에 폭력을 행사한다. 미국의 KKK단(Ku Klux Klan : KKK)이 여기에 속한다. 남북전쟁(1861 ~ 1865년) 후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급진파들이 해방된 흑인들을 정치세력으로 끌어들여 내전 이전 백인들의 권력구조 분쇄를 기도하자 이에 반발한 남부 백인들이 1866년 급진적인 지하 저항세력의 중추조직으로 KKK단을 조직하였다. 이들 단체는 하얀 가운과 복면을 착용한 인종차별주의적 극우비밀조직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내세워 흑인·카톨릭계 이민자·유대인·동양인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이 이 단체를 이용하여 정치세력을 확산 및 여러 지역의 선거에서 승리하였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셋째, 민족주의 테러리즘이다. 이는 민족의 분리독립이나 자치권 확립과 같은 민족자결권을 주장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테러리즘이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중심부의 정부청사 폭파사건과 연이어 우퇴비아 섬에서 노동당 청년부 집회 중이던 10대 청소년들에게 자행된 총기난사 사건은 극우주의자가 단독으로 자행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다문화사회를 반대한 민족주의자의 테러리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의 테러리즘은 파급효과 면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다. 이러한 테러는 심오한 종격적 신념으로 무장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테러사건 중 민족주의 테러사건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알샤밥의 테러활동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알샤밥은 현 소말리아 연방정부체제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⁵⁾’로 통치되는 신정국가로 만들기 위해 국가 전복을 목표로 테러활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주민들의 지지를 의식해 많은 수의 테러활동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위하여 서방국가들이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진출을 비난하며 서방인들을 대상으로한 테러활동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3. 수단과 방법에 의한 분류

테러의 수단과 방법을 기준으로 본 테러유형은 보편적인 분류체계로써 요인암살, 인질납치, 자살폭탄, 항공기 납치 및 폭파, 해상선박 납치 및 폭파, 사이버 공격,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요인암살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테러리즘 수단으로써 특정인물에 대한 살상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인질납치는 테러리스트가 감당하는 위험부담에 비해 선전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테러리스트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테러수단이다. 최근의 ISIS가 미국, 영국인 기자들을 납치 및 참수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자살폭탄 공격은 사람의 몸이나 차량에 폭탄을 지니고 목표지점에서 자폭하는 형태의 폭력행위로써, 최근 들어 중동지역 테러리즘의 전형으로 인

5) 샤리아 : 일반적으로 이슬람법의 법이론을 피즈흐(Figh), 법체계를 샤리아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샤리아는 알라 신의 말 그 자체인 ‘코란Koran’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샤리아는 곧 신의 의지이다.

식되고 있으며, ‘알샤밥’도 즐겨 사용하는 테러 유형이다.

넷째, 항공기 납치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폭발테러로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테러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섯째, 해상의 선박을 납치 또는 폭파하고 선박시설을 파괴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해상 선박 테러로써, 때로는 정박중인 선박이나 항구를 폭파하기도 한다.

여섯째, 사이버 공격에 의한 테러 행위이다.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가상공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사이버 테러리즘이라고 한다.

제 3 절 비대칭전쟁 양상의 개념과 변화 동향

21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새로운 전쟁 양상은 국가와 비국가 조직간의 비대칭적인 전쟁이다. 개념상 비대칭은 불평등(unequal)과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두 국가가 전쟁을 할 경우에 한 국가가 상대방보다 탱크, 전투기, 군함 등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경우 이를 불평등한 상황이라 볼 수는 있지만 비대칭적이라 볼 수는 없다. ‘비대칭전쟁’이란 한 국가가 탱크와 전투기, 군함을 동원할 경우 상대방은 이러한 군사장비가 없기에 게릴라전, 테러전 또는 급조된 폭발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시민을 사살하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대칭(symmetric)’이란 거울에 비치는 본인의 이미지와 같이 닮은꼴을 의미한다. 이미지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 국가간의 전쟁을 대칭적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군인과 무기의 숫자, 훈련의 정도, 무기의 성능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피아가 비슷한 군사체계, 훈련체계, 무기 운용 등으로 대항하므로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대칭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비대칭전쟁이란 ‘피아의 식별이 힘들뿐만 아니라 한쪽이 상대방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비대칭전쟁 방법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 약자뿐만 아니라 강자도 사용하여 왔다.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

사키에 원자탄을 투여한 것도 비대칭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 세기에 통용되는 비대칭전쟁이란 말은 강자와 약자 간의 전쟁, 즉 국가와 비 국가 조직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대칭전쟁이라는 용어가 이처럼 널리 사용하게 된 원인은 물론 9.11 테러사건이다. ‘알카에다’라는 과격 이슬람주의자들로 구성된 비국가 조직이 민간인 항공기 4대를 납치하여 이를 무기삼아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성을 공격하여 무모한 민간인 3,000명이 사망하였으며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만 180 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민간인 항공기였다. 세계 최고의 첨단무기와 최강의 군을 보유한 패권국이 원초적인 공격에 어이없이 당하는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보다 더 많은 미군이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9.11 테러사건은 미국 정치가,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안보를 새롭게 인식케 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가안보 담당자에게는 국가안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9.11 테러사건은 비국가단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지만 이러한 위협에 대한 논의는 이미 그 이전부터 군 관련 조직에서 있었다. 특히 1991년 소련 연방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고 전 세계에 실패한 국가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내전의 양상을 보이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44년부터 1997년까지 104건의 내전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약 2 천 5백만 명이 희생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천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며 관련 국가의 경제가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건의 내전이 진행중이었으며 이 수는 이전 시대 평균보다 약 10 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냉전종식 이후 실패한 국가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냉전기간에 발생한 내전은 대부분 그 동기에 있어서 명분이 뚜렷하였으며 투쟁의 이념도 많은 층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또한 내전 목적도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내전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종교나 경제문제에 불만이 많은 단체

들이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폭력행사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냉전종식 후 독재체제 국가가 붕괴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실패한 국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독재국가는 정치를 강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반정부 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된 국가에서는 정부조직이 느슨해져 사회를 통제할 장악력이 떨어지므로 내전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내전은 그간 누적되었던 불만이 표출되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폭력행사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국가 내 여러 하부조직, 단체, 심지어 범죄조직까지 권력투쟁을 전개하여 비국가 조직에 의한 안보불안이 증가하면서 비대칭적인 갈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웃국가에 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제 안보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동부 아프리카와 시에라리온 등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간 미국은 냉전종식 후 세계 경찰역할을 자임해왔기에 군 내부에서 비국가 조직의 도전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맞춰 일어난 9.11 테러사건은 비대칭적인 안보위협, 즉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대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중에서도 9.11 테러의 당사자인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대응방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그러면 이들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미국과 서구국가를 공격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동의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의 반미·반서구 감정이 악화된 것은 냉전시대부터 누적되어 온 이슬람의 과격화 현상이 탈냉전 시대의 세계화 물결을 타고 급속하게 팽창한 탓이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과격화 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진행으로 서구식 가치관과 관습, 자본주의가 이슬람의 가치관을 파괴한다는 위기감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미국과 서구 국가의 친이스라엘 정책,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의 친미정책 등에 대한 반서구적 감정과 결합하면서 급속한 과급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1978년부터 1988년까지 10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소 이슬람 성전은 이슬람과격분자들이 게릴라전법을 익히고 폭발물 제조방법과 무기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 4 절 비대칭전쟁 양상의 주요 특성

이 같은 비대칭전쟁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편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다.

1. 장기적 소모전 전략

비대칭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 쪽이 주로 장기적, 소모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이러한 전략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9.11 테러사건의 주범인 알카에다의 경우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년을 준비하였다. 대원들은 미국 항공기술교육소에서 장기간 훈련을 받으면서 비행기술을 습득하였다. 이슬람전사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구소련과 10년간 항쟁하였다. 과격 이슬람 단체의 전략은 투쟁 기간을 몇 십년, 심지어 영원한 시간으로 잡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변할 때까지 무한대로 투쟁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는 전쟁을 단기간에 종식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론이 소모적이 장기전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서방국가의 국민들은 희생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군사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꺼리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부응하고자 미국은 군 인력과 국방비를 줄이고, 한편으로는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PCM, UAV 등 첨단무기를 개발 및 도입하여 파괴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속전속결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다.⁶⁾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비대칭전쟁에서는 오히려 취약성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6) PCM은 Precision Guided Munitions의 약자로 정밀타격 유도무기를 의미하며, UAV는 'Unmanned Aerial Vehicle'의 약자로 무인 항공기를 말한다. 흔히 드론(Drone)이라고 부르고 있다.

2. 민간인 불모 전략

비대칭전쟁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 국가의 민간인이나 비군사적인 시설물을 공격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민은 상대방의 불모가 되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전쟁에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3.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홍보 및 심리전략

모든 전쟁에서 홍보 및 심리전을 활용하고 있지만, 특히 비대칭전쟁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상대방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전의를 상실하게 한다. 특히, 현재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러한 대중매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해 준다. 9.11 테러 당시 민간항공기의 세계무역센터 공격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시청자들을 경악케 하였다. 미국 방송국이 1993년 소말리아에서 사살된 미군 병사의 시신이 수도 모가디슈 시내의 거리에서 끌려 다니는 영상을 방영하면서 미국은 소말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전략을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 알카에다 또한 이러한 홍보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방 국가를 위협하는 오사마 빈 라덴의 육성비디오가 방영되고 서방인질의 처형 장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가고있다.

4. 국제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무기의 확보

1991년 소련연방이 붕괴되고 전 세계적으로 내전이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무기 암시장이 활성화되어 무기구입이 쉬워지게 되었다. AK47소총 뿐만 아니라 로켓포, 소규모 지대공 미사일 심지어 핵무기까지 국제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해졌다. 또한 IT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도 폭발물 제조방법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장 위험한 것은 화생방 무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더티 밤(Dirty Bomb)⁷⁾ 제조까지 가능해졌다. 소량의 방사능 물질을 수류탄에 넣어서 큰 경기장 같은 곳에서 폭발시킬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7) 더티 밤(Dirty Bomb) : 방사성 물질과 TNT 등 폭발물질이 결합된 무기로, 폭발력이 크지는 않지만 폭발 시 방사선이 유출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핵 테러 폭발물로 분류된다. 핵폭탄과는 별개로 유해한 물질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폭발물이다.

한다. 이와 같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공격은 국가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데 큰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다.⁸⁾

제 3 장 알샤바의 실체와 퇴치를 위한 노력과 한계

제 1절 알샤바의 실체 연구

1. 알샤바의 탄생 과정과 조직구성

1960년 소말리아는 영국과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1969년 ‘바르’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하였다. 그러나 바르정권이 자기부족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22년간 장기집권하자 이에 반발한 부족들이 통일소말리아회의(USC)⁹⁾를 결성하고 1991년 1월 쿠데타를 일으켜 바르 군사정권을 축출하였다. 이후 소말리아 회의에 참여한 3대 무장군벌인 아이디드, 모하메드(이후 마흐디파로 변경), 아토 등을 주축으로 정권쟁탈을 위한 본격적인 내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무정부상태에서 아이디드파의 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전이 격화되어 사상자와 난민이 속출하였다. 1991년 심한 가뭄에 의해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420만명이 기아에 직면하여 죽음의 땅으로 변하면서 소말리아 사태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92년 4월 대량아사 사태를 막기위해 UN에서 병력을 파견한 이후부터 동년 12월에는 미군을 중심으로한 다국적군 파견, 1993년 5월 UN 임무단 증강 등 소말리아의 정치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1993년 6월 PKO에 참여중이던 파키스탄 병사 24명이 아이디드파 민병대에 의해 살해되는 등 지속적인 폭력사태가 전개되어 결국 UN은 UNOSOM¹⁰⁾의 활동을 실패라고 인정하고 1993년 12월부터 단계적인 철수를 개시하였다. 최종적으

8) 박찬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 『안보학술논집 제 23집 상』 (서울 : 국방대학교 국가안정보장문제 연구소, 2012), pp.58-65.

9) 통일 소말리아 회의(USC, United Somali Congress)

10) UNOSOM(United Nations Operations in Somali) : 소말리아 안정화를 위해 UN에서 2차례에 걸쳐 파견한 평화유지군.

로 1995년 3월 UN PKO(파키스탄군)임무단과 1,500명의 미 해병대가 철수를 완료한 이후 아이디드파는 일방적으로 대통령 취임 및 新 정부수립을 선언하였다.

그 후 반군 간에 정전을 모색하는 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으나 매회 각 군벌간의 이해상충으로 결렬되었다. 하지만 최대파인 마흐디파와 아이디드파가 주축이 되어 협의는 계속 진행하여 왔다. 1996년 10월 케냐 대통령의 중재로 최대 3파는 정전 합의성명을 발표하였으나 동년 12월에 붕괴되었고, 1997년 1월 모가디슈에서 국민 구국평의회(CSN)를 결성하는데 합의하였으나 각 군벌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결렬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아이디드파와 마흐디파가 평화조약을 체결 및 1998년 2월 각 군벌 및 부족대표 450명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각 군벌의 입장 상이로 붕괴되는 등 수차례의 평화협상이 시도되었으나 무위로 그쳤다. 2004년 5월에는 연방의회 구성 데드라인(7월 31일)을 설정하여 新 정부구성을 추진하였으나 데드라인 이내 개원에는 실패하였으며 8월에 전체의원 275명 중 30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회의원 선서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이슬람 법정연대(UIC)¹¹⁾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반테러 연맹과의 약 1개월간의 전투 끝에 2006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를 장악하게 되었다. 2004년 10월 아프리카 주변국과 서방국가들의 지원으로 케냐에서 출범한 소말리아 과도정부(TFG)가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의 군사 지원을 받아 이슬람 법정연대(UIC)를 추방하여 수도 모가디슈를 장악하였다. 이후 추방된 이슬람 법정연대 조직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조직인 알샤밥(Al-Shabaab)이 소말리아 정부전복과 이슬람 율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건설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¹²⁾

알샤밥의 정식명칭은 Harakat al-Shabaab al-Mujahideen(HSM)이며 의미는 아랍어로 “The Youth, 젊음”이라고 알려져있다. 2006년 UIC의 붕괴와 함께 독자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우간다,

11) 이슬람 법정연대(United Islam Court) : 샤리아 율법을 근간으로하는 이슬람 무장조직이다. 2006년 에티오피아의 침공으로 소멸되었다.

12) 황중서 외, 「지부티 협조/ 참모장교 귀국 보고서」, (서울: 국방대학교 PKO센터, 2013), pp.12-14.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 등에서 테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소말리아에서의 유엔 결의안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UN 모니터링 그룹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연합군(AMISOM)¹³⁾의 공세로 인해 그 세력이 약해지긴 하였으나 아직까지 소말리아 남부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하여 각종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현재 병력 5,000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작전능력과 지휘체계, 규율과 통신능력 등은 온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

알샤바의 최고 지도자는 ‘묵타르 압디라흐만 고단’(수 개의 가명을 사용 중)이다. 그는 1977년 7월 10일 소말리아 북부 헤르게이사에서 태어났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지하디스트이다. 그는 2012년 2월 알카에다(Al-Qaeda)의 계급체계에 포함된다고 천명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알카에다에 귀속하였음을 공식화하였다. 알 카에다 역시 이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아프리카로의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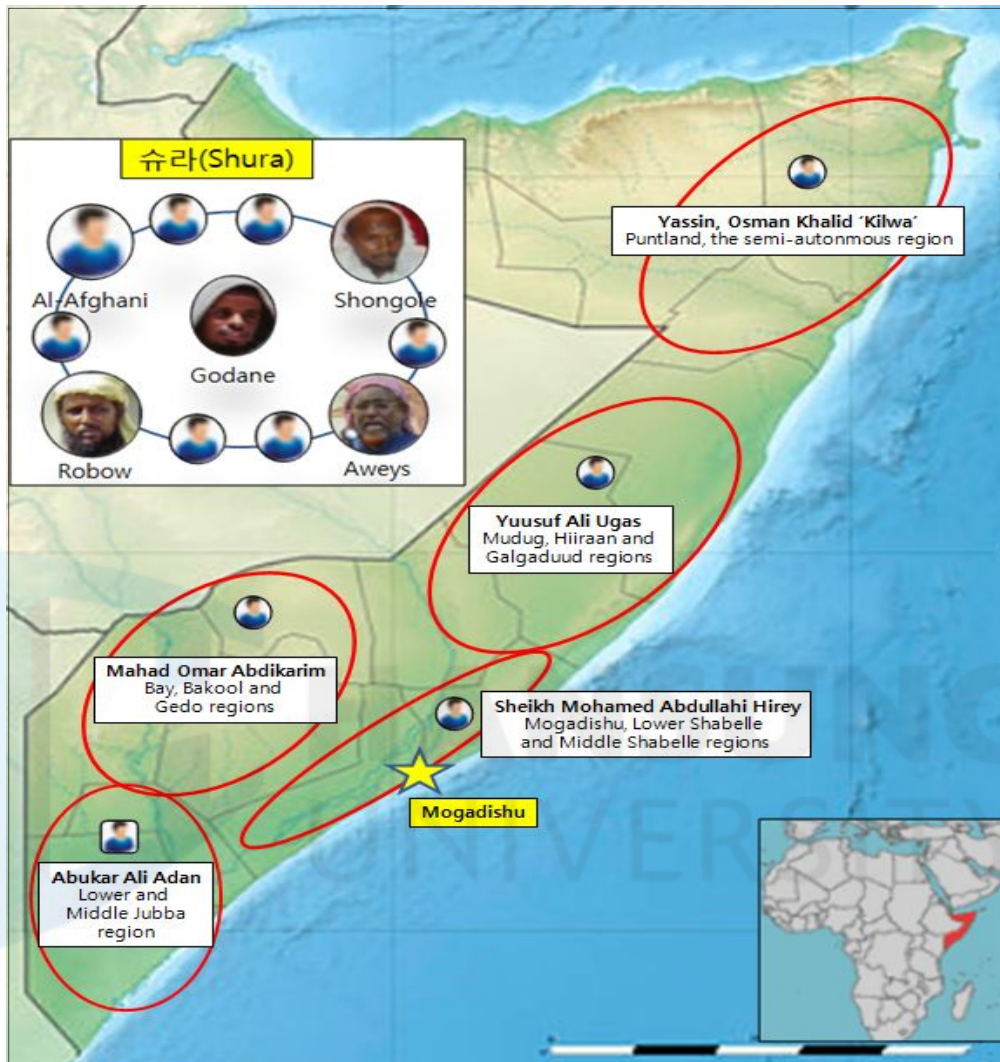
알샤바의 인적구성을 볼 때 소말리아 ‘하바르 거에어 부족’의 하위부족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록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부족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⁵⁾ 하지만, 조직내의 외국인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는 300여명의 외국인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작전현장 보다는 무기기술지원, 작전계획 수립, 훈련, IEDs 제작, 의료지원, 언론 및 공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3) AMISOM의 임무는 소말리아에서 평화지원작전수행, 국가 안정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조건조성, 최종적으로 UN 평화유지 작전에 임무를 인계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부터 브룬디 중장 Silas Ntigurirwa이 지휘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을 포함한 주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와 소말리아 정부기관들에 대한 방호를 제공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124에 따라 AMISOM은 21,586명의 군 병력과 540명의 경찰을 소말리아에 전개하고 있다. 현재 우간다, 브룬디, 지부티, 시에라리온, 케냐, 에티오피아 군이 소말리아 중부 및 남부에 6개의 작전구역에 전개되어 있다.

14) Kim sook. (2013). 「Letter dated 12 July 2013 from the Chair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751(1992) and 1907(2009) concerning Somali and Eritrea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 p.7.

15) Terje Ostebo (2010), 「ISLAMISM IN THE HORN OF AFRICA」 ,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Institute. p.34.

<그림 3-1> 알샤밥 지도부 및 지역별 조직도



출처 : Kim sook. (2013). 「Letter dated 12 July 2013 from the Chair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751(1992) and 1907(2009) concerning Somali and Eritrea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 p.51.

알샤밥은 슈라(Shura)¹⁶⁾라는 협의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 조직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또한, 20

16) 슈라(Shura) : 원래는 "협의"라는 뜻으로 코란 제42장의 제목이다. 초기 이슬람에서 제2대 칼리프인 우마르 1세가 후계자를 선출하기 위해 구성한 선출위원회에 적용되었다. 이후 이슬람 국가의 부속원로회의 또는 국가자문기관으로, 일부에서는 재판권을 가진 법률기관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30명의 소대규모로 기동화된 군사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칼빈계열의 소총과 수류탄, PKM 형의 중기관총과 RPG로 무장하고 있다. 일부 선전 영상에서는 저격소총이 전시되기도 한다.

알샤밥의 조직은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강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구성은 현 지도자인 목타르 압디라흐만 고단의 리더쉽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의 몇 가지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 비 집중화된 작전능력을 가진 강력한 중앙통제 구조이다. 둘째,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명목상의 최고지도자에 두고 탄력적이고 부족중심적이며 눈에 띄지않는 군사작전조직을 가지고 있다. 셋째, 암니야트(Amniyat)라는 조직을 두어 비밀경찰, 대정보활동, 정치통제, 암살 및 자살폭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넷째, 역내에 한정된 목표를 가지면서도 국제 지하드조직의 일원으로 지역과 국가급 어젠더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조직원 모집과 훈련 및 운영자금 확보

알샤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슈라의 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지역 알샤밥 지휘관, 부족 지도자들을 만나 금전적인 동기를 부여하며 젊은이들과 소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알샤밥의 조직원들은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9월 22일 중부 샤벨지역에서 알샤밥 조직원 수 십명이 탈출하여 AMISOM에 투항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은 소수부족 출신으로서 다수부족인 알발부족과 갈질부족 출신 알샤밥 조직원들로부터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알샤밥에 가입하였다.

알샤밥은 조직원들에게 출신 부족과 계급에 따라서 최소 100 ~ 최대 500USD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알샤밥내에서 자살폭탄 테러와 암살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Amniyat 조직원들은 매월 300 ~ 400USD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급여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고 있는 소말리아 젊은이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조건이 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젊은이들

이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알샤밥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소말리아 국내와 동아프리카 인근 국가로 이주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알샤밥의 포섭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난민기구(UNHCR)¹⁷⁾의 난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100만명이 넘는 소말리아 난민들이 소말리아 국내의 난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인근 국가에도 100만명 이상의 소말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알샤밥의 이슬람 극단주의와 노선을 같이하는 일부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들을 포섭하는 중계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반이슬람, 반알샤밥세력들의 테러도 빈번히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심취한 외국인들의 알샤밥 가입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로 예멘, 수단, 케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국, 미국 등의 서구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알샤밥은 조직의 글로벌화를 위해 유튜브와 각종 이슬람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입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활발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다. 2개의 라디오방송국, 6개의 뉴스 웹사이트, 1개의 트위터와 다중매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1개의 생산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샤밥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퍼트리고 최신 영상을 퍼트리고 있다.

알샤밥의 국제적인 미디어 전략의 주요 수단은 ‘알 카타이브 미디어 재단’(즉, 알 카타이브 뉴스 채널)이며, 정기적으로 다중매체 홍보물을 생산하고, 2013년 2월 3일에 새로운 트위터 계정(@HSMPress1)을 만들었다. 2013년 1월 28일 폐쇄된 기존의 트위터 계정(@HSMPress)은 2011년 12월 7일 이후부터 팔로워 21,000명에 대해 하루 3번 메시지를 보냈었다. 새로운 계정에도 현재 3,800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 3번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 2012년부터 알샤밥은 스와힐리어 영상과 케냐지역 무자히딘 전사들을 영상에 등장시키고 케냐지역 무슬림 성직자와 언론에 대한 초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 일례로 2013년 3월 3일, 최고지도자 고단은 4분 51초짜리 라디오 육성 메시지를 통해 케냐 국내 무슬림들에게 “케냐 선거를 보이콧하고 케

17) 유엔 난민기구(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난민들이 새로운 체재국의 국적을 획득할 때까지 이들의 정치적·법적 보호를 책임지는 유엔소속 기구이다.

나군에 대한 지하드를 실행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알샤밥의 선전활동은 외국인 특히, 동아프리카인들에게 알샤밥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마르 하마미¹⁸⁾가 자신에 대한 암살시도를 트위터에 공개한 사건으로 인해 알샤밥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알샤밥은 소말리아 대중에게 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전파하고 있는데, 알 안달루스, 알퍼칸, 수개의 웹사이트, 샤하다 뉴스 등이 있다.

이러한 방송매체들은 대부분 소말리어로 만들어지나 영어로도 만들어지며 가끔 잘 알려진 알샤밥 지휘관들이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며, 최근의 테러활동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2012년 겨울에 아프리카 연합과 정보지원팀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가 알샤밥 라디오방송 ‘알 안달루스’를 매일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청취한다고 한다. 대부분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은 알샤밥이 통제하고 있으며, 다른 저널리스트들은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알샤밥의 방송 외에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가디슈 내에 거주하는 라디오 청취자의 대부분이 알 안달루스를 듣는다는 것은 소말리아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내에서도 알샤밥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조직원 영입전략을 통해 오사마 빈 라덴 몰락 이후 방황하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출신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영입되었으며, 서방국가에서 성장한 소말리아 출신 해외파들이 가세하고 있다. 현재 300여명의 외국인들이 알샤밥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동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 영입 시도도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알샤밥은 특히 미국 본토에서 대담한 ‘전사 리크루팅’을 실시했다. 2011년 미국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알샤밥은 2007 ~ 2011년 미국인 40명, 캐나다인 20명을 영입했다. 특히 미네소타주의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 전사 모집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미국 정보 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당시 모집된 미국인 중 절

18) 오마르 하마미 : 알샤밥 내 미국 출신 지도자로서 신병모집, 조직자금, 조직 지휘관 등의 주요활동을 하였으나, 최고지도자 ‘고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2013년 9월 12일 암살되었음.

만은 소말리아에서 사망했지만 아직 15명이 남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알샤밥은 남부 샤벨레, 바라웨, 베이, 히란, 갈가덕 지역 등에 20여개의 훈련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남부 샤벨레에는 자살테러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알샤밥 신병은 3개월 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는다. 비밀특수부대인 암니야트 前 조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첩보수집, 암살 등의 추가 훈련을 받는다. 또한, 그의 진술에 따르면 50세 가량의 ‘하산’이라고 불리는 수단인이 훈련소의 교관으로 있었으며 그는 수단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 ‘하산’은 알카에다 수장인 ‘아이먼 알 자와히리’에 의해서 특별히 임명되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으로 갈 수 없는 아프리카 지하디스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²⁰⁾

UN에 따르면 알샤밥의 2011년 수입은 7천만~1억 USD로 평가된다. 모가디슈와 키스마요로부터 퇴각 한 이후 수입원은 감소하였어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알샤밥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조직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수입원은 소말리아 특산품인 차콜(charcoal : 숯)이다. 차콜은 ‘아카시아 부세이’ 나무를 태워서 만드는데 이 나무는 천천히 타면서 아로마 향이 발산되어 중동지역에서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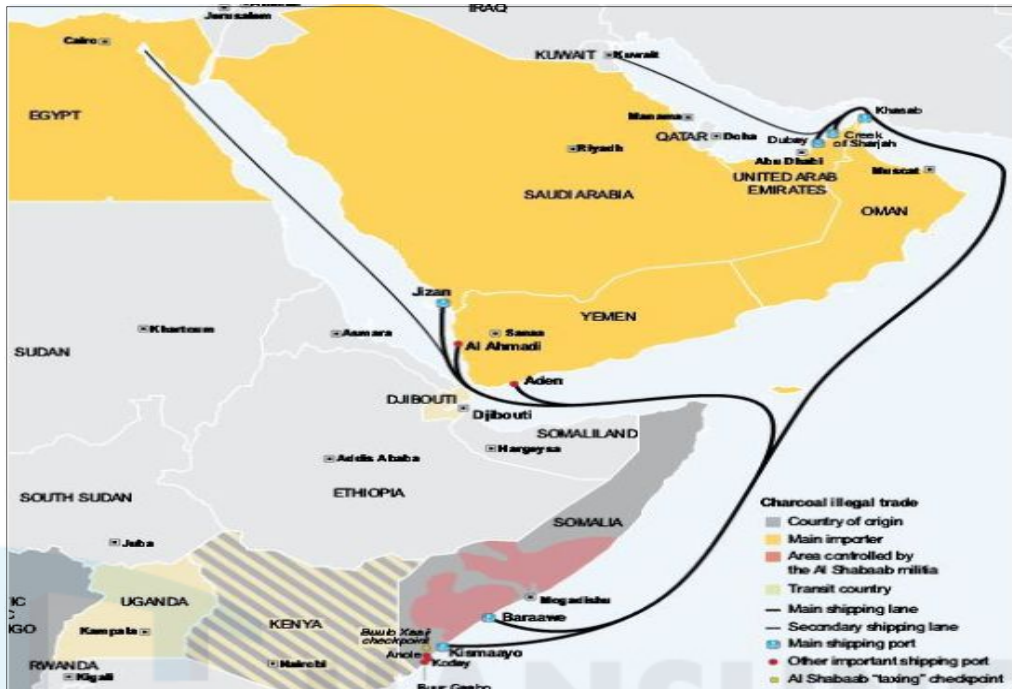
알샤밥은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바라웨뿐만 아니라 키스마요 일부지역과 소말리아 남부 일부지역 등을 통해서 차콜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차콜 수출품들은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국들은 차콜 수입에 대한 매매가격을 높게 지불함으로써 알샤밥의 활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샤밥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세력의 확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알샤밥이 통제하고 있는 소말리 남부지역의 키스마요지역은 질 좋은 차콜이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차콜 한 자루 당 5 ~ 6USD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알샤밥은 소말리아 남부의 주요지역을 통제하면서 지

19) [VANCOUVER] 케냐 테러 다국적 조직 소행 ... 미국 아프리카 정책 구명, 검색일 2013.9.23)

20) Kim sook. (2013), op.cit. p.66.

<그림 3-2> 차콜 판매 루트



출처 : 머니지하드(<https://moneyjihad.wordpress.com/tag/al-shabaab>, 검색일 : 2014. 7. 11)

역 내 항구를 통해 차콜을 수출하고 있다. 2012년 11월 이후부터 매년 24만 자루의 숯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360 ~ 384백만 USD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이익금은 차콜 무역거래 업체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까지 매일 90 ~ 100대분의 차콜을 싣은 트럭이 키스마요로 이동하였으며, ‘블루 사지’ 검문소에서는 알샤밥이 5톤 트럭미만은 250USD, 12톤 이상 트럭은 500USD를 세금으로 징수하였다. 이 한곳의 검문소에서만 매일 22,500 ~ 50,000USD의 수입이 발생하며 한 달치를 계산 시 675,000 ~ 1.5백만 USD의 수입이 발생한다.²¹⁾ 검문소가 수 개라고 가정 시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UN 모니터링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 북부 ‘폰트랜드’에서는 해적들이 인질 몸값의 30%를 알샤밥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례로 해적들은 2013년 3월 9일과 11일에 있었던 MT 스미니호와 MV 로얄 그레이스호의 인질 석방금으로 천 5백만 USD를 받았으며 이중 30%센트인 4백 50만

21) Kim sook. (2013), op.cit. p.441.

USD를 알샤랍에게 제공하였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해적들의 활동범위가 무기 밀매, 불법 조업어선 경비, 인신매매, 마약류의 유통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알샤랍과 상당수 연계되어 있다. 소말리 북부지역의 폰트랜드 지방정부의 평가에 의하면 180여척의 이란 선박, 300여척의 예멘 선박, 그 외 중국, 대만, 한국, 유럽인 소유 선박들이 소말리아 해안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동안 수 만 톤의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였다. 이러한 불법 조업어선들에 과거 해적 출신이거나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을 사설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한 번 항해에 경비원 한 명당 50달러씩을 받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활동은 <표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1년 최고 정점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단 한건의 피랍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알샤랍으로 인한 소말리아 국내 정치 및 안보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활동 침체와 빈곤은 수 많은 젊은이들을 해적활동을 포함한 범죄행위로 몰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치, 사회,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3 - 1 > 소말리아 해적활동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SUSPICIOUS EVENTS	8	59	99	166	73	20	3
TOTAL ATTACKS	24	163	174	176	35	7	2
OF WHICH PIRATED ⁴	14	46	47	25	5	0	0
DISRUPTIONS ⁵	0	14	65	28	16	5	1

출처 : EU NAVFOR 홈페이지, <http://eunavfor.eu/key-facts-and-figures>, 검색일 : 2014. 7. 13일)

알샤랍은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중부 및 남부 소말리아 일대에서 수 십 개의 검문소를 운영하며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정세 불안정과 높은 실업률에 따라 아라비아반도로 향하는 불법 이주자들이 수 만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난민들이다. 매년 소말리아인 10,000 ~ 30,000명이 예멘으로 불법이주를 하고 있으며,²²⁾ 이

러한 난민들도 알샤밥이 장악중인 지역을 통과시에는 어김없이 통행료를 납부해야한다. 난민들에 대한 통행료 부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자료는 없다.

일부 국제 인도주의 지원기구가 알샤밥 통제지역에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인도지원이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구와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행정기구들은 계획된 수혜자들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혜자의 반 이상을 자신들을 지원하는 세력들로 교체하고자 한다. 알샤밥은 또한 NGO들이 철수하면서 남긴 구호물품들을 장악하였으며, 일부 기구들은 알샤밥이 ‘등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알샤밥에 의한 세금징수문제는 인도지원 기구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인도지원기구들은 알샤밥에게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지 고용인들에게 명시된 것보다 많은 월급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알샤밥에게 세금을 내고 있다. 또한, 알샤밥은 구호물품을 받는 수혜자들로부터도 세금을 받고 있다. 구호단체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불문율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알샤밥에게 구호물품이 들어가는 것을 묵인하면서 자기 조직의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알샤밥 뿐만 아니라, 일명 ‘게이트 키퍼’라고 불리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보호비’ 명분의 착취를 하는 사조직들이 활동하면서 구호물품을 수혜자들에게 분배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게이트 키퍼들은 구호품 갈취뿐만 아니라 난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알샤밥은 코끼리 상아 밀무역을 통해 조직운동 자금의 큰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코끼리 행동연합’의 사무총장인 ‘안드레아 크로스타’에 따르면 알샤밥은 매월 상아 밀무역을 통해서만 365,000파운드(622,000 USD)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조직원 월급의 40%를 충당하는 금액이다. 2012년 미 의회증언에서 케냐 야생동물 보호단체인 ‘Tsavo trust’의 책임자인 이안 사운더는 한 마리의 코끼리만 밀렵하여도 1998년도의 케냐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사건과

22) UNOD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Eastern Africa : A Threat Assessment’ p.3.

(50,000USD 소요 추정) 같은 규모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아의 평균 무게인 13.6kg(30lb)을 고려 시 1.6개의 상아만 가지고도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두 개의 미국 대사관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2012년의 도매가격인 kg당 2,357달러를 적용한 것이며 수요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 시 지금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모니터링 그룹은 헤로인 유통과 인신매매에 대해서 수 건의 보고를 받았으나 세부적인 증거나 직접적인 증언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아편이 중동, 동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밀무역되고 있으며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헤로인 등 마약류 밀매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고려 시 알샤밥이 헤로인 유통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는 없다.

3. 반정부 활동과 조직 지도부의 내분 가능성

알샤밥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IED 및 수류탄 공격, 자살폭탄, 암살, 정부군과의 교전, 매복 공격,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습격 등 수 백건의 반정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활동지역도 소말리아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국가인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지부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알샤밥에 의한 무차별적인 무력사용은 민간인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UNMAS²³⁾에 따르면 2011년에는 모가디슈에서 28개의 IED가 폭발하여 116명이 죽고 378명이 다쳤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IED 사용이 3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62명의 사망자와 23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2012년에는 자살폭탄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4건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하였는데 비해 2012년에는 같은 4건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사망 34명, 부상 125명이 발생하였다. 소말리아 정부에 협력하거나 스파이로 의심되는 정치인이나 지역의 주요인사에 대한 암살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알샤밥은 이러한 직접적인 살해를 제외하고도 민간인들과 지역사회를 위협

23) UNMAS(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UN지뢰대책기구)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시행하고 있다. 자기들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 도로를 막거나 야간통행금지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민간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인간방패’로 사용하기도 한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민간인들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며, 親 정부성향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위협편지를 쓰기도 한다.

아프리카 연합군의 공격으로 알샤바의 영향력이 많이 위축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013년 9월 21일에 케냐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을 공격하여 67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이어서 2014년 2월 21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소말리아 대통령궁을 공격하는 등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또한, 2014년 5월 24일 지부티 수도인 지부티시티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여 3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지부티도 더 이상 알샤바의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중, 최근의 케냐와 지부티에서의 테러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알샤바는 소말리아 정부 전복 및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는 정부를 세우자는 민족파와 ‘지하드’를 인근 국가로 확대하자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서구국가 등에서 유입된 해외출신 주축의 ‘국제 지하드’파가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구도 속에서 미국 출신의 해외파 조직원인 ‘오마르 하마미’가 민족주의파에 의해 암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이 한창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되던 시기에 소말리아 외부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은 조직 내부에서 해외파의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알샤바의 테러활동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UN 소말리아 감시단에서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2010년 12월에 슈라(Shura)회의가 소말리아 남부 샤벨 지역의 불로 마리어에서 최고 지도부 16명이 모여 개최되었으나, 그 이후 최고 지도부 내의 불신과 정책에 대한 반대로 암살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실제 소집회의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4월 29일, 일부 지도자들이 ‘파트와’²⁴⁾를 통해 지도자 중

한명인 ‘오마르 하마미’ 암살을 비난하고 ‘암살이 알라에 대한 불복종이라면 Emir²⁵⁾(즉, 고단)에 대한 복종은 없다’라고 선언하였으며, 이 선언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목타르 로보우, 하산 다히르 아웨이, 이브라힘 ‘알 아프카니’, 주바르 ‘알 무하지르’, 몰림 부르한 등 주요 지도자들에 의해 선포되었다.

이들 중 로보우와 아웨이로 대표되는 알샤밥내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과 노선이 다른 국제적인 지하드 운동의 유명인사였던 오마르 하마미를 보호하기 위해 고단과 맞섰던 점을 고려 시, 알샤밥 내 민족진영과 국제진영의 관계를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오해와 단순화를 가져올 수 있다.

2013년 4월과 5월에는 슈라(Shura)의 핵심 지도자 3명이 최고지도자 ‘고단’에 대해 공개적인 불신임을 표현하였으며, 알샤밥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슈라’를 재조직하자고 요구하였다.

아직까지 이러한 내부갈등이 조직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샤밥의 군사조직이 당파로 분해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는 소말리아 내 부족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탄생시킬 수 있으며 결국 이슬람 군벌들에 의해 통제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알샤밥의 탄생과정과 조직운영 시스템을 살펴보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테러조직이며 소말리아 국내를 벗어나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들도 중동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인 점을 고려시 초국가 테러리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 소말리아 연방정부체제를 전복하여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되는 신정 국가로 만들기 위해 테러활동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정치적 테러리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슬람을 믿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와 이들을 지원하는 서방국가들에 대한 테러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서 이슬람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2006년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공시부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샤밥이 통제하고 있는 소말리아 중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다. 국제적인 지하드로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이용한 조직원활동을 모집하고 있으며, 국제 무기 암시

24) 파트와(fatwa) : 이슬람의 종교정인 판결, 이슬람 법 문제에 있어서 학문적인 의견제시.

25) Emir : 무슬림 세계에서 최고 지도자를 지칭 (Amir, Amier, Ameer라고도 함)

장과 에리트리아, 북한 등의 불량국가들을 통해 다양한 무기를 입수하는 등 국제 테러리즘과 비대칭전쟁으로서의 주요 특징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제 2절 알샤밥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계

1. 미국과 아프리카 연합군의 성과와 문제점 및 제한사항

미국은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국경 및 공항, 항만 등에 대한 경계가 취약하여 테러조직의 자유로운 이동과 훈련캠프 활용, 지역경제를 통한 자금 확보 및 전달 등이 용이하며 또한,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대테러 작전 결과 활동기반이 취약해진 테러조직의 도주 및 은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03년 5월 아프리카 지부티에 대테러 작전부대인 CJTF-HOA를 창설하게 되었다. CJTF-HOA의 작전은 미 국무부 및 국제개발기구와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진다. 이를 '3D'라고 하며 Defense(미 국방부, 즉 아프리카 사령부 예하 CJTF-HOA), Diplomacy(외교부, 지부티 주재 미 대사관), Development(USAID : U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구성된다.

작전은 3단계로 구분되고 현재는 2, 3단계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1단계는 테러조직 압박을 위하여 지부티를 근거지로 작전여건을 조성하고 작전수행 능력을 구비하며 작전활동을 타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2003년 지부티에 주둔한 이래 제 1단계 작전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2단계는 결정적 작전단계로서 테러조직을 교란하고 격멸하며 필요한 1단계 과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다.

3단계는 안정화 작전단계로서 테러조직을 계속 격멸하고 재출현을 방지하며 해당 국가에 대한 경제 및 안보지원, 민사 / 민군활동을 통하여 작전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작전책임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들에 극단적인 테러리즘이 확대되고 뿌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온 것으로 보여진다. CJTF-HOA의 작전책임지역은 다양한 갈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는 첨예한 대립지역이다. 2003년 지부티에 전개한 이후 CJTF-HOA는 각

분쟁에 적극 중재함은 물론 민사작전 및 인도적지원 작전을 통하여 지역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1991년 이후 중앙정부가 없이 군소 부족 간 대립하고 있는 소말리아에 대하여 평화회담을 통한 안정 유지 및 궁극적으로 2004년 8월 의회가 개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단 정부와 반군간의 20년이 넘는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평화회담 개최 및 합의도출, 유엔 제재조치 유도 등의 노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남수단이 2011년 7월 9일 분리독립 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CJTF-HOA는 병력전개가 곤란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협조반(CCE : Country Coordination Element)을 투입하여 정치, 군사에 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작전활동 여건을 마련하였다. 국경 및 해상감시, 대테러 작전은 물론 연합 군사훈련, 불법 이민자 감독, 난민에 대한 본국 귀환 지원, 학교 및 병원 신축, 도로보수, 대민 의료지원, 질병퇴치자금 지원, 지뢰 및 불법탄 제거작전 등을 통하여 미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점령군이 아닌 우방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서 작전책임지역 내 전 국가에 대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작전활동 확대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책임 지역내의 각국 정부도 CJTF-HOA 작전 전개 이후 불법무기를 회수하고 테러조직과 협상을 거부하며 대테러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작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케냐 및 에티오피아가 대테러부대를 창설하였고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 예맨이 미국과 연합으로 대테러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작전 책임지역내의 각국 정부의 대테러 작전 참가 및 테러예방을 위한 노력들은 CJTF-HOA를 필두로 미국이 그 동안 실시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⁶⁾

하지만, 대테러 작전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테러위협이 상존하는 당사국들에 대한 정치, 군사지원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단기간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테러조직의 역량 또한 강화될 수 있다. 알샤바은 현재 알카에다와 연계하고 있으며, 최근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융성하고 있는 이슬람 테러조직인 ‘보코하람’²⁷⁾과도 연계되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테러조직 네트워크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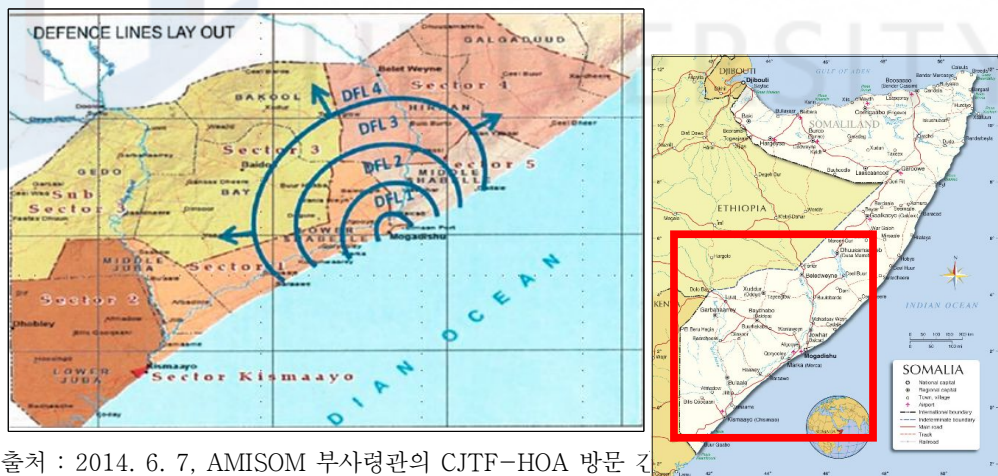
26) 황중서(2013). 전개서. pp.66-73.

27) 보코하람(Boko Haram) : 2001년 결성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이다.

실정이다. 이러한 테러조직의 국제화에 비해 현재처럼 테러위협 당사국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당사국들이 테러조직과 싸우는 것을 지원하는 전략은 당사국 부대를 훈련시키고, 장비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군대의 질과 양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미군 수준의 작전수행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악몽으로 인해 미군들을 직접 알샤밥 소탕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AMISOM의 작전에 좀더 적극적인 미군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MISOM의 지상작전 간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공중폭격을 지원하거나, 알샤밥의 조직원들이 인근 국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연합(AU : African Union)은 UN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19일 최초 6개월의 임무로 소말리아 안정화를 위한 동아프리카 지역 연합군인 AMISOM의 전개를 승인하였다.

<그림 3-3> 아프리카 연합군 작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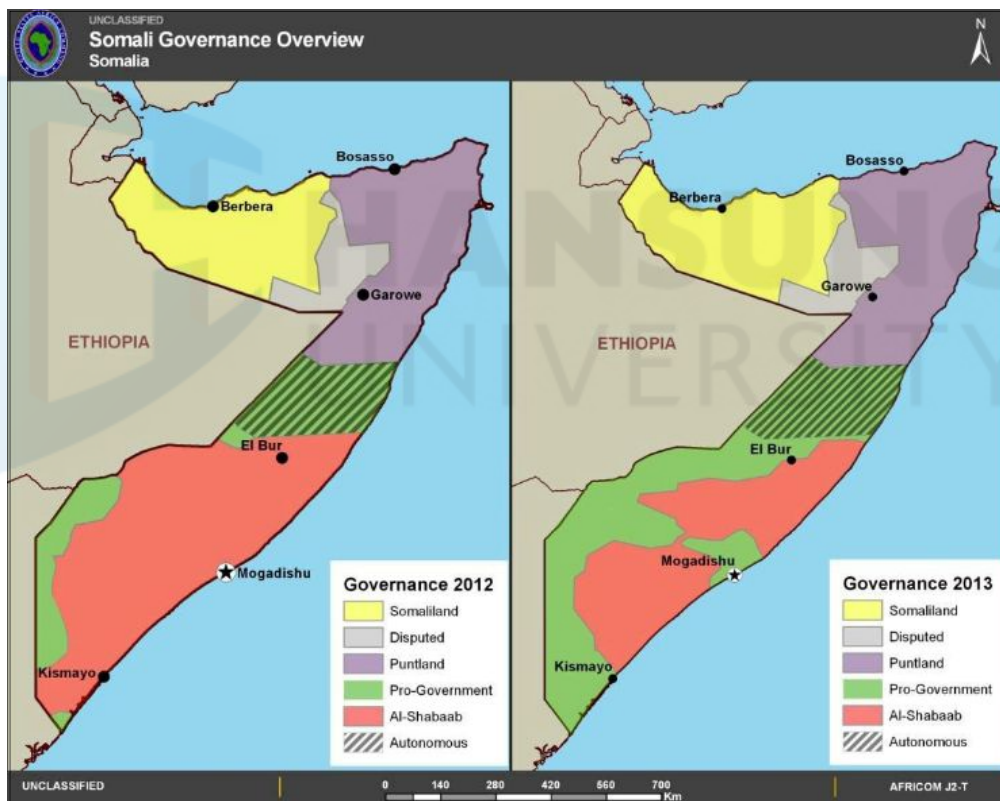
출처 : 2014. 6. 7, AMISOM 부사령관의 CJTF-HOA 방문 기록

2007년 3월 우간다군이 최초 전개한 이후부터 AMISOM은 알샤밥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로 현재 소말리아 중부 및 남부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을 알샤밥으로부터 탈환하였으며, 탈환한 지역의 지도자들과 정기적인 회의, 민간인 치료소 운용, 식수 제공 등의 민사작전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정

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AMISOM은 최초 전개 시 부족한 장비와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UN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그 작전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도로망 부족 등으로 부상자 후송헬기가 절실했던 AMISOM은 부족하지만 수 대의 응급의료헬기를 운용하게 되었으며,²⁸⁾ 무장 불도저를 이용하여 모가디슈에 설치되어 있던 알샤바의 진지들을 분쇄 및 전진하여 모가디슈를 탈환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정적인 전술통신체계와 신호정보, UAV 항공정찰 능력 확보 등은 알샤바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²⁹⁾

<그림 3-4> 소말리아 세력분포 변화



출처 : 미 아프리카 사령부(2013)

28) 2014. 7. 11, CJTF-HOA 브룬디 연락장교 소령 프로스퍼 인터뷰.

29) Matt Freear. (2013). Lessons from the African Union mission for somalia(AMISOM) for peace operations in mali, p.3.

이러한 AMISOM의 발전은 초기 부진한 작전 진행으로 인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AMISOM의 작전에 꾸준한 지원을 보내준 병력 공여국들과 국제사회의 인내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2009년 9월에 있었던 AMISOM 본부에 대한 알샤바의 공격으로 부사령관과 여러 참모가 사망한 심각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국제사회는 자금지원과 정치적인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며 작전의 템포를 늦추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AMISOM의 작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³⁰⁾ 하지만, AMISOM과 소말리아 정부군, 친정부 군벌에 의한 부적절한 무력사용, 무차별적인 포격과 항공기 폭격, 비합법적 체포와 구금, 성범죄 등의 인권유린, 불법적인 세금징수, 차콜 불법판매 등의 행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UN과 AMISOM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무력사용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표 3-2> AMISOM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

일 자	내 용
2012. 8. 11	키스마요에서 케냐 군의 4차례 포격으로 민간인 3명 사망
2012. 1월	키스마요 인근 케냐 군 진지 인근에서 민간인 7명 사망
2012.10. 25	레고지역에서 알샤바와 AMISOM의 교전지역을 통과하던 버스가 공격당하여 민간인 6명 사망
2013. 1. 15	레고지역 학교에서 AMISOM의 오발사고로 학생 6명 사망

출처 : Kim sook. (2013). 「Letter dated 12 July 2013 from the Chair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751(1992) and 1907(2009) concerning Somali and Eritrea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 p.374.

부족을 중시하는 소말리아의 문화로 인해 소말리아 정부군과 친 정부성향 군벌들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약탈,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성폭력 등을 아무런 제재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3월 ‘볼라 하오’지역을 점령했을 때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3명의 민간인이 처형되었으며 여성들과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명이 체포되었다. 마을을 탈환하면 알샤바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는 어린이를 포함

30) Matt Freear. (2013). op.cit, p.3.

한 마을의 남자들을 체포하였으며 이는 치안문제보다는 그들로부터 개인 당 20 ~ 100 USD 가량의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親 정부성향 군벌들은 임의의 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통행세를 받고 있다.

인권감시체계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내에 성 폭력이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들이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난민 수용소에 있거나, 난민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성인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며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 해 동안만 1,700건의 강간신고가 있었다.

2012년 4월부터 7월간 군사작전이 강화되었을 때 성범죄 발생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4월 125건, 5월 118건, 6월 79건, 7월 144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AMISOM, 소말리아 정부군, 동맹군벌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특히, 2011년 AMISOM 기지에서의 매춘행위와 소말리 소수부족 여성들의 AMISOM 병력과의 결혼문제가 소말리아 인권그룹에 보고되면서부터 AMISOM에 의한 성범죄 사실들이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성범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AMISOM에 채용되기 위해 기지내에서 대기하는 여성 통역관들에 대한 성 착취. 둘째, AMISOM에 의해 운영되는 모가디슈 내 병원에 여성들이 출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 상납 요구. 셋째, AMISOM 기지내의 상점에서 매춘행위를 위한 여성공급과 전국에 퍼져 있는 AMISOM 전진기지에서도 음식을 제공받기 위한 매춘행위 등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침묵할 것을 강요받으며 문제 제기시에는 AMISOM 기지에 출입이 금지되어 생계를 위협받는다. 한편, AMISOM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9월 28일 케냐 군이 AMISOM의 일부로서 키스마요를 탈환하였을 때 엄청난 양의 차콜이 발견되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때 발견된 차콜은 4백만 자루로 시가 6천 ~ 6천4백만 USD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36(2012)에 따라 차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수출이 금지되고, 소말리아 대통령이 차콜 수출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냐군 사령관은 즉시 차콜 수출을 시작하였다.

더구나, 주요 차콜 생산지로부터 키스마요항으로 이동하는 차콜 운반차량들

은 알샤밥과 소말리아 정부군, 친정부 군벌, 케냐 군에 의해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통행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며 근본적으로 차콜을 둘러싼 소말리아 부족 간 이해와 AMISOM과 소말리아 정부 간의 긴장을 유발하여 결국 알샤밥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반감하는 것이다.

2. 소말리아 정부의 부정부패

소말리아는 2012년 8월 20일 과도정부체제를 끝내고 소말리아 연방 공화국으로 공식 출범하였고 같은 해 9월 10일 하산 셰이크 무하메드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9.16일 취임하였다. 이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국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오랜기간의 내전기간동안 피폐된 국가 통치체제와 오랜 부족 간의 갈등, 내전기간 동안 지역별로 권력을 움켜쥐었던 군벌들과의 갈등, 알샤밥의 정부전복 시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국가조직 및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정부패는 국제사회의 노력마저도 희석시킬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광범위한 조작과 뇌물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였다. 과도정부 내 주요부족 출신의 유력한 관리들은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선거과정의 초반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과도정부 대통령이었던 ‘셰이크 샤리프 셰이크 아흐메드’, 과도정부 총리 ‘압디웰리 모하메드 알리 가스’, 과도정부 국회의장 ‘샤리프 하산 셰이크 아덴’ 등이 연관되어 있다. 총선 전 단지 135명의 원로위원들이 물러나는 과도정부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였으며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서 전 내무부장관인 아브디사마드 모하무드 알리가 최종결정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원로위원 중에는 알샤밥, 에리트리아와 연관된 ‘우가스 아브디 다히르’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미 알샤밥과 연계된 일부 정치인들이 국회 내에 포진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고간 사실도 포착되었다. 전 대통령 셰이크 샤리프 셰이크 아흐메드는 다로드 부족과 와산겔리 부족 원로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대가로 50,000 USD를 제공하였으며 전 총리 아브디웰리 모하메드 알리는 부

적격자에 대한 지명 및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준 대가로 8,000 USD를 받았다.

원로위원들이 선정된 이후 27명의 선거관리 위원들이 2012년 7월에 선정되어 원로위원들에 의해 추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였다. 선거관리위원들은 국회의원 지명자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으나 원로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 많은 살해위협과 방해를 받아야 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27명의 국회의원 후보자 중 과거 군벌 전력이 있으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27명중 17명이 대법관 ‘아이디드 압둘라히 일코 하나프’에 의해 지명철회 요구가 거부되었다. 대법관 ‘아이디드 압둘라히 일코 하나프’는 각 군벌들로부터 20,000USD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 국회의장 ‘샤리프 하산 셰이크 아텐’도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8월 10일, 디르족 및 소수부족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부족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선거과정에서의 부패에 대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일로 인해 이들은 살해위협을 받아 은신할 수 밖에 없었다. 2012년 8월 말 그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대법관에 의해 거부되었다. 대법관 ‘아이디드 압둘라히 일코 하나프’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100 USD 밖에 되지 않는 소송비를 10,000 USD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비난 받았다. 또한 2012년 선거이후 5명의 원로위원이 살해당하였으며, 알샤밥은 총선 전부터 선거에 참가하는 원로위원들은 누구든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왔었다.

소말리아에서는 1991년 정권붕괴 이후, 혼란을 거듭하면서 공공재산에 대한 약탈이 관습적으로 범죄행위로 인식되지 않았다. 2012년 세계은행은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공공재산 관리체계가 완전히 부재하며 2009 ~ 2010년간 1억 3천 1백만 USD의 정부 수입이 사라졌다고 밝혔으며, 이는 2년간 정부수입의 6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세계은행은 소말리아 정부가 국내 수입만으로 공무원과 정당, 군에 대한 급여를 충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2012년 2월 15 ~ 17일, 재원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다른 급한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불투명한 재원관리로 인해 부패

의 고리는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 소말리아 중앙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소말리아 중앙은행에 대한 정밀 분석결과, 국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정부운영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민간인들과 주요 정치인들이 임의로 국가 재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앙은행 계좌에서 자금 인출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민간인에 의한 인출. 둘째, 장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인출,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것인지 장관을 대리해서 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특히, 그 것이 정부기관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운용자금 인출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장관의 자금담당원만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셋째, 정상적인 정부기관 운용자금 인출이다.

중앙은행 기록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자금 인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87%, 2012년에는 76%,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72%가 개인에 의한 자금인출이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개인과 정부기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한 자금인출은 평균 88%였다. 이러한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은행은 정부조직 운용비용보다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소말리아 여권은 잘못된 이름이나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어 지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여권을 소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소말리아 정부에서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가짜 여권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하던 소말리아 여성이 발각되어 소말리아 대사관으로 연락하였으나, 소말리아 대사관은 그녀에게 진짜 여권을 발행해주고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비자를 받으러 되돌려 보낸바 있으며, 또한 2013년 초에는 알샤랍과 연관된 비 소말리아인이 가짜 여권을 이용해 소말리아로 들어가려고 시도한바가 있다.

소말리아 이민국 문건에 의하면 여권발행은 100 USD이나, 미국에서 소말리아 여권발행을 담당하는 회사는 여권 당 350 USD를 부과하고 있으며 모두 현찰로 결제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100 USD를 가지고 250 USD는 두바이에 있는 소말리아 대사관으로 보낸다.

이민국은 비자세를 징수하여 중앙은행에 납부할 책임이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 초부터 매주 평균 3,000명의 승객이 ‘아

덴 에드' 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적게 잡아 승객의 절반만이 50달러의 비자세를 냈다고만 하더라도 최소한 975,000 USD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비자세와 여권세를 합친다면 최소한 백십만 달러가 2013년 첫 3개월 동안 수입이 있어야 하나 고작 300,000 USD 만이 중앙은행에 입금되었다. 다른 18개의 대사관과 소말리아 내외부에서 사라진 금액을 계산하면 2013년 첫 3개월 동안 백만 USD가 사라졌다.

이러한 부패를 신고한 전 이민국 부국장에 대한 보복도 발생하였다. 2012년 8월 중순, 이민국 국장인 '압둘라히 가포우 무하메드'는 자신의 부패를 UN 감시단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전 이민국 부국장 '아브디 바르 지브릴'을 체포하였으며, UN 감시단에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진술하라고 충으로 위협하였다. 지브릴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폰트랜드와 소말리아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폰트랜드 원로들과 국제언론의 관심, 외교적인 압력으로 지브릴은 2012년 9월 1일부로 풀려났다. 지브릴은 그 이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으며 혼자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브릴은 모가디슈에 남아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모가디슈항은 소말리아 국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횡령이 성행해왔다. 특히, 소말리아 기근이 있었던 2011년 한 해 동안 3,415,840 USD에 해당하는 인도적 지원물품을 항구 소장인 '사이드 몰림 알리'가 횡령하였다.

모가디슈 항구의 활동을 평가해봤을 때, 한 달 평균 항구 수익은 3백 8십만 USD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나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중앙은행에 입금된 수익은 2백 7십만 USD뿐이었다. 중앙은행으로의 입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항구에서의 선적활동과 비교해볼 때 많은 금액이 횡령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최소 33%의 월 수익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말리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분쟁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안보에 대한 위협과 부패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석유시추사업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08년 석유법과 소말리아 헌법간의 해석차이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소말리랜드와 폰트랜드 사이에 위치한 ‘술’지역과 ‘사낙’지역에서의 충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한사항과 문제점

2011년 인도주의 지원기구들은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기근과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였다. 알샤밥 퇴각 이후 비록 일부지역에 대한 접근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취약한 민간인들에 대한 접근은 알샤밥 외에도 소말리아 중앙 및 지방정부, 지방 군벌, 무장세력 등에 의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샤밥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기구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무장세력들은 인도주의 지원기관들에 대해 세금부과, 불법적인 도로점거, 협박과 약탈을 일삼고 있다. 더구나,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지원의 한계와 ‘게이트키퍼’라는 보호조직의 성행으로 지원품들이 인도주의 지원조직의 직원들과 협력자들뿐만 아니라 제 3자에 의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

인도주의 지원기구들은 취약계층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역별 책임 세력들과 협조를 해야하며 이들의 의도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알샤밥은 지난 2년간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2011년 11월과 2012년 1월에 있었던 비정부기구, UN 기구, 국제 적십자사에 대한 수차례의 추방 이후 알샤밥은 이슬람 지원기구들의 지원도 2012년 8월 금지하였다.

인도주의 지원기구 직원들에 대한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한해에만 수류탄 공격과 차량 탈취, 약탈 등의 사건이 150여건이나 발생하였다. 특히, 2011년에 12월에 있었던 인도주의 지원기구의 직원 2명을 살해한 소말리아 현지 고용인은 30년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뒤 소말리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인도주의 지원품에 대한 횡령은 단순한 물품과 자원에 대한 절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난민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으로부터 지원품을 착취하는 개인과 조직들로 인해 적절한 ‘지원품 분배’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과 조직들은 지원품 착취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유린, 성범죄를 저

지르고 있다. 이렇듯 인도주의적 지원 자체가 이러한 중대한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소말리아의 많은 지역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들의 낮은 질과 실행력 부족에 대한 진실들이 현지 감시기관들에 의해서 밝혀졌다. 특히, 2011년 소말리아 기근에 대한 대응책으로 매우 투명하고 양호하게 조성된 기금을 통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 기구 직원들과 협력기관 및 계약업체들의 횡령이 발생하여왔다.

이러한 인도주의 지원품에 대한 횡령과 비효율적 분배 문제에 대해 그러한 행위를 일삼은 당사자들의 일차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부단체들의 인도주의 지원품 횡령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대응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 왔다.

제 4장 알샤밥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제 1절 알샤밥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소말리아 정치 불안 가중

알샤밥은 현 소말리아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는 모든 정치인, 정부관리, 민간인, 국제지원기구 직원까지 대상으로 끊임없이 테러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과도정부시기와 현 소말리아 연방정부시기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알샤밥의 암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소말리아 국회의원들은 신변보호를 위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4km 떨어진 호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이 시설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국회의원들의 생명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출신부족 등을 고려하여 정치인들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부패와 무능한 국정운영에 반 강제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알샤밥이라는 거대 ‘악’에 의해 한 국가의 정치구도가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정치안정 및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2. AMISOM 병력 공여국에 대한 테러활동 증가

알샤밥은 자신들을 소탕하기 위해 파견된 AMISOM에 병력을 공여한 국가들에 대한 테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10. 7. 11 우간다 캄팔라에서 2010년 월드컵 결승전을 시청하고 있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자살폭탄 테러를 저질러 74명이 죽고 70명이 부상당했으며, ’13. 9. 21일에는 케냐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을 공격하여 67명의 민간인을 살해하였다. 또한, ’14. 5. 24일 지부티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는 미군을 위시한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알샤밥은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부티는 우리나라³¹⁾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로부터 여행안전 주의 등 입국에 제한을 당하였다.

3. 소말리아 난민증가로 인한 지역 안보불안 가중

알샤밥의 반군활동으로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 등 소말리아 주변국가로 이주한 소말리아 난민들로 인해 또 다른 안보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소말리아의 인구는 2012년 현재 약 천 만명 정도이나 지난 6년간 국내 혼란과 가뭄, 기아 등의 이유로 해외로 이주한 난민은 763,000여명으로 인구의 8%에 달하고 있다. 2012년 한해에만 75,000명이 에티오피아(35,800명), 예멘(22,300명), 케냐(13,800명) 등지로 이주하였다.³²⁾ 또한, 소말리아 국

31) 2014. 6. 5.부, 해외여행 안전경보 2단계 발령 후 해제

32) UNHCR ‘Global Trends 2012’ p12.

내에서 거주하는 난민 1,100,000명은 대부분 모가디슈와 인근을 연결하는 Afgooye 통행로에 밀집해있다. UNHCR 난민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연말 현재 해외 소말리아 난민은 1,136,143명이며 소말리아 내 난민은 1,132,963명이다.³³⁾ 특히, 케냐에는 세계 최대의 소말리아 난민수용소³⁴⁾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수용소는 이미 그 수용한계인 9만 명을 넘어 2013년 4월 29일 현재, 423,496명의 난민을 수용중이다. 이 중 51%가 여성이고, 58%는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이렇듯, 수많은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난민수용소의 수용능력 초과로 난민수용소 내외에서 끊임없이 성범죄와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근본주의를 설파하는 이슬람 성직자에 대한 암살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등 소말리아 난민들에 대한 케냐인들의 적대감이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냐정부는 2014년 4월,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에게 수용소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였으며, 4,000여명을 체포하고 이중 80여명을 소말리아로 강제 추방하였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난민들이 소말리아로 돌아갈시 인도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말리아의 안보불안이 계속되는 현재의 상황 고려 시, 케냐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소말리아 난민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어려움과 안보불안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테러조직간 연계로 아프리카 전역에 안보불안 확대

지난 2012년 6월, 미 아프리카 사령관 대장 카터 험은 “무엇보다도 특히, AQIM³⁵⁾과 보코하람의 연계는 그들이 자금과 훈련, 그리고 폭발물을 공유하는 등 아주 위험한 징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다.”, 그리고 보코하람, AQIM, 알샤밥은 “아주 위험하다” 라고 강조하였다.

알샤밥은 2012년 2월 알카에다에 복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보코하람과의 연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33) UNHCR(2012), op.cit, p45. 표 2.

34) 다다브 난민수용소 : 1991년 10월, 케냐 다다브에 설치.

35) AQIM(Al-Qaeda in Mali) : 아프리카 말리에서 활동중인 알카에다 지역분파

미 두 조직 간의 연계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알샤밥은 2014년 4월 14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여학생 200여명 납치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선전매체인 al-Andalus Facebook 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알샤밥 前 조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하산’이라는 사람이 케냐와 남수단의 경계지역에 있는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1년 3월 ‘보코하람’ 조직원들의 훈련을 마치고 나이지리아로 떠났다.

이미 알샤밥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연합으로서는 보코하람이라는 또 다른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역량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코하람에 대한 대응은 오롯이 나이지리아 정부군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다행히 보코하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5월 17일, 파리에서 프랑스, 영국, 나이지리아, 배닌, 카메룬, 니제르, 차드 등의 정상들이 참석하여 보코하람 퇴치를 위해 정보공유와 협조를 결의하였지만 직접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코하람과의 전투를 이끌어 나갈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 의지와 군의 작전 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 ‘군력 조나단’은 2012년 2월 연설에서 “보코하람이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기구와 경찰, 군에 침투하여 있다.”고 밝힌바 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의 뿌리깊은 부정과 부패로 인해 이에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들을 소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현재 북아프리카 시리아 내전을 포함하여 LRA의 테러활동으로 혼란에 빠진 중앙아프리카, 반군활동으로 수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남수단, 소말리아 AMISOM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로서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나이지리아 사태를 방관만 한다면 나이지리아 ~ 남수단 ~ 중앙아프리카 ~ 소말리아로 연결되는 안보불안지대 형성 및 아프리카 전역으로 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 2절 알샤밥 퇴치를 위한 대응 전략

1. AMISOM 군사작전 능력 강화

소말리아는 광활한 면적과 비포장도로로 인해 신속한 병력전개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더구나 알샤밥 통제지역은 제한된 도로망뿐만 아니라 알샤밥에 의한 IED 설치로 인해 육상을 통한 부대 진입이 제한되는 곳이 산재하여 AMISOM의 작전템포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병력 수송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비한 항공작전 환경과 절대적인 항공기수의 부족으로 인해 AMISOM 병력들은 도보이동 및 정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단 시간내에 광활한 작전지역을 정찰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특히 헬리콥터의 운용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수송을 위한 응급의료지원 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소말리아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AMISOM 소속 케냐군 정도나 자국 공군의 항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1년 기준 AU의 작전예산은 2억 6천만 달러로 고작 보잉사 C-17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이다.³⁶⁾

알샤밥 소탕을 위한 항공작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아프리카 준비군(EASF) 창설과 연계해서 AMISOM의 항공작전 능력향상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AMISOM 병력 공여국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미 아프리카 사령부 예하 CJTF-HOA에서 담당하고 있다. CJTF-HOA에서는 AMISOM 병력 공여국들인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지부티, 브룬디 등에서 AMISOM에 파견될 부대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끊임없이 미군 교관들이 편성되어 각국으로 교관임무를 수행하러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미군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각국의 AMISOM 파견 부대들은 그 파견임무가 끝나면 해체가 되며 소속 군인들도 진급, 전역, 타 부대 전속 등으로 인해 미군들로부터 전수받은 훈련 내용들, 특히 부대단위 전술훈련 등

36) Birame Diop(2012). Building Africa's Airlift Capacity. Africa Security Brief No.22, p.5.

의 경험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³⁷⁾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트는 2012년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의 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을 시키고 그들을 지도하는 등 작전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체계적인 조직역량을 갖추는데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AMISOM 파견 부대에 대한 지속가능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AMISOM 참가국 군대의 부사관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교관임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육성. 둘째, 차후 파견되는 자국 군대에 대한 자체 교관이용 교육훈련 실시. 셋째, 교육훈련 전용 시설 또는 기동 훈련 지원전문팀 체계화. 넷째, 교관단과 교육훈련체계의 통합운용. 다섯째, 작전교훈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 여섯째, 상호보완성 확보를 위해 병력 공여국들의 지원사항 조율 등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³⁸⁾

이뿐 아니라 AMISOM군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유린과 민간인 살상, 성 범죄, 불법적인 차콜 매매와 세금징수 등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예방대책 마련 및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 각 병력 공여국에서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서 소말리아인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만 성공적인 소말리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안통제 강화를 통한 무기 지원 및 자금 이동 차단

현재 알샤바의 세력은 많이 약화되었으나 해상을 통한 차콜 수출과 상아밀매로 끊임없이 조직운용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예멘, 북한 등의 국가들을 통해 불법무기들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과 불법무기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말리아 해안에 있는 항구들에 대한 봉쇄와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한 감시 외에는 근본적인 차단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알샤바의 막대한 운영자금 출처는 남겨둔 채 지상에서 직접교전에 의한 소탕작전에만 의존하는 것은 알샤바 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37) Daniel Hampton(2014). Creating Sustainable Peacekeeping Capability in Africa. Africa Security Brief N.27, p.3.

38) Daniel Hampton(2014), op.cit, p.4.

될 수 없다.

차콜 수출 방지와 관련해서 UN 소말리아 감시단에서는 이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소말리아로부터 수출되는 차콜의 직접 및 간접적인 수입을 즉시 중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과 AMISOM으로 하여금 차콜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의무 부여, 차콜 수입과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UN 위원회에 권고한 상태이다.³⁹⁾

또한, 상아 밀매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상아밀매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가해야한다.

하지만 알샤밥 통제하에 있는 소말리아 해안지역의 모든 항구를 우선적으로 탈환하고 병력을 상주시키며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활동과 항구지역 이외의 해안가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소말리아 정부의 부정부패 감소대책 강구

알샤밥 퇴치의 주체인 소말리아 정부기관의 부정부패는 소말리아 국가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이미 많은 기부 국가들과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소말리아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소말리아 정부는 자체 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부패 세력을 일소하고 능력과 청렴성에 기준하여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노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미 대통령부터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소말리아 정부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UN을 통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정부기관의 고위관리 임명 시 UN을 통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UN 감시단에 의해 주기적으로 소말리아 정부의 부정부패 감시결과에 따른 청문회를 개최 및 관련자 처벌을 실시하는 등 UN 주도하의 부정부패 노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39) Kim sook. (2013), op.cit, p.46.

4. 조직원 충원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알샤밥 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양과 질적으로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한다.

알샤밥에 의해 운영되는 선전매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차단을 해야 하며, 역으로 알샤밥의 실체에 대한 홍보물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알샤밥의 전술을 고려 시 그들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첩보의 중요성을 고려 신변안전을 위해 해외이민과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광범위하고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케냐를 비롯한 에티오피아, 지부티, 우간다 등지의 소말리아 난민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알샤밥의 포섭활동에 쉽게 동조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난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알샤밥의 실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알샤밥의 조직원으로 충원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

제 5장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테러리즘과 비대칭전쟁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알샤밥이 현재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자행하고 있는 테러활동과 알샤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영향과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알샤밥의 활동양상을 볼때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던 테러리즘과 비대칭전쟁의 대부분의 특성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는 곧 알샤밥이라는 테러조직의 활동이 특정 지역과 특정 기간에 한정된다기 보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처럼 장기적이고 알카에다처럼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소말리아 자생테러 조직에서 중동지역 알카에다와 서아프리카 지역 보코하람 등과 연계된 초국가 테러조직으로서 이들과의 연계를 통한 테러활동 확대와 중동지역의 이슬람 국가의 일부 불량 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활동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인 정치적, 민족주의적 테러리즘의 성격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테러활동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테러활동의 원인 한 개가 제거 또는 달성되더라도 다른 이유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테러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비대칭전쟁양상의 주요 특징을 고스란히 적용함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 대상 무차별 테러활동을 통해 공포심을 극대화함으로서 소말리아 국민들의 자포자기식 테러 퇴치 의지 약화와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알샤밥 퇴치 작전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시 알샤밥 퇴치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유지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알샤밥에 대한 국내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알샤밥은 이미 중동의 알카에다와 같이 아프리카의 안보위협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과 전문가들이 다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북한이라는 당면한 위협에만 급급하여 국제사회의 위협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하며, 이는 곧 국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알샤밥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 테러조직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앞으로 알샤밥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진출을 계획하는 민간 또는 정부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구광모. (1982). 「테러와 국제사회」. 서울 : 고려원.
- 구상희. (1999). 「테러학 개론」. 서울 : 동문.
- 김태준. (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도서출판 봉면.
- 노암 촘스키, 장영준(역). (2001). 「불량국가」. 서울 : 두레.
- 박준석. (2006). 「뉴테러리즘 개론」. 서울 : 백산.
- 박준영. (1994). 「국제정치학」. 서울 : 박영사.
- 사이먼 리브, 황의방·한영탁(역). (2001). 「새로운 전쟁 : 빈라덴 조직과 미래의 테러」. 서울 : 중심.
- 여영무. (1989). 「테러리즘과 저항권」. 서울 : 백산.
- 이삼성. (1998).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서울 : 한길사.
- 이은득. (2000). 「국제문제의 전략적 분석」. 서울 : 국방대학교.
- 이찬승. (2007).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 : 대영문화사.
- 이태운. (2004). 「새로운전쟁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서울 : 모시는사람들.
- 임희섭. (1979). 「우리시대의 테러리즘」. 서울 : 중앙일보사.
- 조영갑. (2004). 「테러와의 전쟁」. 서울 : 북 코리아.
- 최진태. (2006).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 대명문화사.
- 허영식. (2001). 「지구촌시대의 국제테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 한국문화사.
- 홍양표. (1984). 「전쟁원인론」. 서울 : 형설출판사.

2. 학위논문 및 보고서, 간행물

- 류재갑. (2002) “테러리즘과 국제관계 그리고 미래 문명”, 한국국방연구원, 2002)
- 박찬기. (2012).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 「안보학술논집 제 23집 상」 (서울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2012)

- 오태호. (2010) “국책테러리즘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안보전략학 석사 학위 논문
- 오현철. (2013). “국제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안보전략학 석사 학위 논문.
- 이태윤. (2002). “탈냉전기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 황종서, 김기성. (2013) 『지부티 협조 / 참모장교 귀국 보고서』. (서울 : 국방대학교 PKO 센터, 2013), pp.12-14.

3. 국외문헌

- Anja Korenblik. (2013).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Eastern Africa : A Threat Assessment. 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
- Birame Diop, David M. Peyton, and Gene McConville. (2012). Building Africa's Airlift Capacity : A Strategy for Enhancing Military Effectiveness.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Clement Mweyang Aapengnuo. (2010). Misinterpreting Ethnic Conflicts in Africa.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Dr Francis Nguendi (2012). Africa's international borders as potential sources of conflict and future threats to peace and security. ISS(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Daniel Hampton. (2014). Creating Sustainable Peacekeeping Capability in Africa.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Lessons from the African Union mission for somalia(AMISOM) for peace operations in mali, Enabling Capabilities. (2013). International Journal STABILITY of Security & Development.
- Jakkie Cilliers. (2008). The African Standby Force An update on progress. ISS(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Kim sook. (2013). Letter dated 12 July 2013 from the Chair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751(1992) and 1907(2009) concerning Somali and Eritrea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 Kjetil Tronvoll. (2010). ISLAMISM IN THE HORN OF AFRICA, accessing Ideology, Actors, and Objectives. ILPI(International Law and Policy Institute).
- Katherine L. Zimmerman. (2011). Al Shabaab and the Challenges of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 Somalia.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Oliver Walon. (2010). Youth, armed violence and job creation programmes, A Rapid Mapping Study. GSDRC(Governance and Social Development Resource Centre).
- Paul D. Williams. (2013). Peace Operations in Africa : Lessons Learned Since 2000.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Paul D. Williams (2010). AMISOM's Five Challenges.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Roy Love. (2009). Economic Driver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Horn of Africa. CHATHAM HOUSE.
- Steven Livingston. (2011). Africa's Evolving Infosystems : A Pathway to Security and Stability.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Terje Ostebo. (2012). Islamic Militancy in Africa.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UNDOC. (2009). CTITF Working Group Report, Tackl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UNDOC.

ABSTRACT

An Analysis of Implication in East Africa by Somali Terrorist Organization 'Al-Shabaab'

Choo, Yun-Sik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errorist Group Al-Shabaab's endless terrorism pursuing the overthrow of Somalia Government is already beyond Somalia reaching whole East African region and in particular, the threat is expanding throughout the whole African continent through connection with terrorist Group like Al-Qaeda and Bokoharam.

Although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S and UN is trying to relief the security crisis in Somalia and East African region by deploying AMISOM as well as providing indirect support from US Military and humanitarian support, Dysfunction and corruption of Somalia Government, inefficient humanitarian support and lack of capacity of AMISOM is making it difficult to eradicate Al-Shabaab.

On this thesis, Somali Terrorist Group 'Al-Shabaab' has been studied on the theoretic ground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 asymmetry war which is getting spotlight as new war trend in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result summary is like below ;

Amid the change of paradigm of international conflict from

inter-states to state vs non-state armed group after 9.11, Al-Shabaab is also showing the aspect of asymmetry war fighting between state or combined state vs non-state armed group like PLO conflicting with Israel, Al-Qaeda and Boko Haram. Namely, it's conflict between civilization vs savage, regular army vs non-regular armed group.

This situation is forcing western countries to change the paradigm in which it was easy to identify enemy and friendly force. Compared to the regular army which is restrained by public opinion, war law, international law and humanitarianism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 non-state armed group is proceeding regular army in operation efficiency as well as obtaining the room for activity which doesn't have any refrain and is non-centralized. Especially, the connection between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is expanding terrorism throughout the globe.

The improvement in information sharing like IED on the internet is expanding indiscriminating terrorism and causing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WMD by rogue states like Syria, Iran, North Korea resulting the sharpening of effort to deter the spread of terrorism

International terrorism is being expected in the future to show the trend of using WMD like nuclear, biochemical weapon and cyber terrorism.

I've realized that most of the security study were focused on North Korea and East Asia region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resulting the lack of study on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 and their activity.

It means that Korea doesn't have the same sense and ability of security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necessary to conduct study in depth on the international terrorists on the globe in the accordance with Korea's statute which is expand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peace keeping activity.

Terrorist groups and activity should be deeply study in the dimension of war theory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tudy and establish system from preventive action to deter the creative environment for terrorism through multiple angled analysis and identifying the indication of terror occurrence to response.

